



장나라 “백화점 VIP 전담팀 이야기…독특한 긴장감 매력”

이상윤과 부부 호흡…SBS 월화극 ‘VIP’ 28일 첫 방송

“저와는 다르게 똑 부러지고 업무처리 능력도 굉장히 좋은 이성적인 친구입니다.”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TV 월화극 ‘VIP’로 돌아온 배우 장나라(38)는 최근 양친구 목동 SBS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웃었다. ‘VIP’는 성인백화점 상위 1% VIP 고객을 관리하는 전담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오피스 멜로극이다. 장나라는 이번 작품에서 VIP 전담팀 차장 나정선을 연기한다. 그는 “시작할 때는 정선과 나의 교집합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그래서 더 연기해보고 싶었다. 갈등을 대하

거나 해소하는 방법이 나와는 너무 달라 좋은 경험이었다. ‘쿨’한 여성이어서 닮고 싶더라”고 말했다. 정선의 남편이자 VIP 전담팀 팀장 박성준 역은 이상윤(38)이 맡아 장나라와 호흡했다. 이상윤은 “내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사람일 것”이라며 “성준은 말이 없고 속으로 다 삭이는 성격 외에는 나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데 쿡이 끝날 때쯤엔 나와 많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장나라와의 호흡에 대해 “연기에 대해 비슷한 관점이 있어서 잘 맞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촬영하는 동안

안 편했다”고 팀워크를 과시했다. 그라자 장나라도 “이상윤 씨는 누구를 절대 불편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다. 배려를 많이 받았고, 동갑이어서 대화하기도 편했다”고 화답했다. 장나라는 전작 ‘황후의 품격’이 좋은 시청률을 낸 데 대해서는 “시청률이 잘 나와 주면 감사하지만 그걸 미리 계산하거나 가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 생각한다. 그저 세세한 감정 변화 등을 연기하며 공부 많이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드라마의 최대 매력은 독특한 긴장감”이라며 “보시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VIP’에는 장나라와 이상윤 외에도 이청아, 박성근, 장혁진, 조승연, 이진희, 김미경, 최홍일, 정애리, 김서라, 장현성, 전혜진 등이 출연한다. 연출은 이정림 PD가, 극본은 차해원 작가가 맡았다. 이 PD는 “이 작품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캐릭터들이 가진 감정의 깊이”라며 “백화점에서 하는 업무들을 세세하게 표현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름 동안 월화극을 잠정 중단하고 예능을 편성한 SBS TV는 ‘VIP’를 기점으로 월화극을 재개한다. 월화예능으로 선보인 ‘리틀 포레스트’가 기대 이하 성적 거둔 가운데 ‘VIP’가 해당 시간대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사진=드라마 홈페이지>



트와이스, 내년에도 도쿄돔…월드투어 추가 발표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그룹 트와이스가 내년 3월 일본 도쿄돔에서 2회의 추가 공연을 연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가 내년 3월 3일과 4일 도쿄돔에서 추가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트와이스는 전날 일본 지바 마쿠하리메세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VCR를 통해 도쿄돔 추가 공연 소식을 알렸다. 트와이스는 지난 5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트와이스라이트’(TWICELIGHTS)를 성황리에 치르는 중이다. 미주 4개 도시와 태국 방콕, 필리핀 마

닐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지에서 팬들을 만나고, 이달 23일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일본 투어를 시작했다. 이번 공연 추가로 이들의 월드투어 일정은 총 17개 도시 27회로 늘어났다. 트와이스는 일본 데뷔 21개월 만인 지난 3월 29~30일 도쿄돔 콘서트를 치렀다. 당시 이틀간 10만 관객을 동원했다. 한편, 트와이스는 다음 달 20일 일본 2집 ‘&TWICE’(앤드트와이스)를 발표한다. 지난 18일 선공개한 타이틀곡 ‘Fake & True’(페이크 앤드 트루)는 현지 라인뮤직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기자 직설적 발언 방송한 KBS ‘시사직격’ “안타깝고 송구하다” 사과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직격’ 제작진이 최근 방송에서 국내외 패변의 한일관계 관련 발언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사과했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시정자의 매서운 지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악화된 여론 배경에 반일, 혐한 주장을 쏟아내는 언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의 솔직한 대화 속에서 해법의 단초를 얻고자 했다”

고 방송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제작진은 방송이 현재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일 양국 특파원들이 주장하고 반박하는 포맷으로 구성됐음을 강조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 2018년 대법원 판결,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 부분에 있어서 50분이라는 편성 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일문제는 문재인 씨 역사관 탓”이라고 발언한 구보타 루리코 일본 산케이신

문 해설위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데 대해선 “산케이신문은 우편향된 아베 정권과 같은 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아베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산케이신문과 같은 보수우익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보타 위원의 ‘문제인씨’라는 호칭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씨’라는 표현이 격식을 갖춘 존칭어로 사용된다. 아베 총리를 지칭할 때도 출연자 모두 ‘씨’라

는 표현을 총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다”며 “다만 제작진이 자막을 사용하면서 국민 정서를 더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일부 발언을 가지고 비판에 비만이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 전체 프로그램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방송을 제작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톱모델 헤박, TV조선 ‘아내의 맛’ 합류

TV조선 스타 부부 예능 ‘아내의 맛’은 세계 모델 랭킹 16위에 빛나는 헤박이 남편 브라이언박과 함께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헤박은 남편, 한 살배기 딸 리아와 함께 꾸러가는 미국 시애틀에서의 삶을 공개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관리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헤박은 2005년 데뷔 직후 뉴욕에서 만나 수이, 마크 제이콥스 컬렉션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고, 프라다 무대에 발탁된 첫 동양 모델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또한 국내에서 중형무진으로 활동하며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은 끝에 경쟁한 모델들을 제치고 보그가 꼽은 ‘톱 10 모델

스’에 선정됐다. 그러던 중 2008년 세계 100위권 선수들을 담당하는 테니스코치 브라이언박과 결혼하고, 그 생활 10년 만인 2018년 딸을 출산했다.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4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10 좋은 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기본 좋은 날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SBS 뉴스 50 KBC 생활뉴스
11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스페셜	00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실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다크 나쁜 신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 보합설(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다크 인사이드(재)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다크 공감(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모모 유아 놀자 스페셜 50 뽀뽀모모 유아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700회 기획(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볼24 55 일지리 전국 굿잡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조선로코-녹두전		00 VIP
11	35 UHD 숨터 40 지방자치의 날 특집 자치는 미래다	10 KBS특별기획 드라마 생일편지(재)	05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40 KBS 뉴스 50 KBS 걸작 다크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0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p>07:00 로보가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똥똥똥 유치원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최고! 호기심딱지 09:00 출동! 슈퍼왕스 09:30 원더볼즈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p>	<p>12:10 건축탐구 - 집 13:00 EBS 다크프라임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4:45 몰락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가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출동! 슈퍼왕스(재)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16:25 마사와 곰(재) 16:40 똥똥똥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페파 피그(재)</p>	<p>17:45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머털도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모험 남미 에콰도르 칠레 -아마존, 정글 속으로> 21:30 한국기행 <섬마을 밥집 2부 장도, 찬 바람 불면 꼬막> 21:50 전대미문 다크실업 UP, 63세 그들 22:45 건축탐구 - 집 23:35 미래교육 플러스</p>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음 10월 2일 己亥) ☎ 010-9790-8237

<p>子 36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48년생 주력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음이나. 60년생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72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갑갑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줄 일이 생길 것이다. 96년생 노파심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버려라. 행운의 숫자 : 86, 49</p>	<p>午 30년생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42년생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54년생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66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78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90년생 확실하게 들어 고치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61</p>	<p>丑 37년생 여권을 발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49년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호전 되리라. 61년생 형편대로 도모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73년생 어려움은 보이지만 맞서 불 만한 계임이다. 85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97년생 무난한 하루가 진행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91</p>
<p>寅 38년생 평상시에 상당히 불편해왔던 것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난감 하겠다. 50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해 대비하라. 62년생 근년 원년부터 정확히 찾아야겠다. 74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라. 86년생 지각 변동을 재촉 하리라. 98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행운의 숫자 : 30, 15</p>	<p>卯 32년생 아니다 싶으면 즉시 접어라. 44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56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야. 80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92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행운의 숫자 : 10, 62</p>	<p>辰 39년생 시종일관하자. 51년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3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나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75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점을 이룬다. 87년생 터놓고 논의해야만 수궁하게 된다. 99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행운의 숫자 : 53, 05</p>
<p>巳 40년생 전혀 다른 영역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52년생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64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6년생 한 쪽으로 치우친 상태에 놓여 있다. 88년생 조정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00년생 재물은이 특별히 좋으니 재수발원 하여 보라. 행운의 숫자 : 72, 09</p>	<p>未 31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리라. 43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발전적인 판도를 기약한다. 55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67년생 항상 시킬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된다. 79년생 시급하다. 91년생 피관하기는 해도 이득이 상당한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6, 50</p>	<p>申 32년생 아니다 싶으면 즉시 접어라. 44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56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야. 80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92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행운의 숫자 : 10, 62</p>
<p>辰 41년생 고찰이 선행 되어야 자질이 빛나지 않는다. 53년생 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65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77년생 집적만으로 예산한다면 큰 코 다칠 수다. 89년생 틈틈히 보았던 것이 허할 것이다. 01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18</p>	<p>酉 33년생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45년생 가을의 결실에 견디는 판도이니 기쁘게 파종하자. 57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69년생 승부를 걸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진다든 사실을 알라. 81년생 얼떨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93년생 타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6, 73</p>	<p>戌 34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46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결정은 속히 하되 실행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70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82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제의 해결을 호소하리라. 94년생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2</p>
<p>巳 35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47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59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71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83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되겠다. 95년생 가장 건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0, 99</p>	<p>亥</p>	<p>亥</p>